

예산안 벼랑끝 대치...초유의 '野' 단독 처리' 현실화하나

민주 '합의 불발시 오늘 수정안 제출' 이태원 국정조사도 계속 공전 일각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거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불과 하루 남긴 14일에도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안을 안 가져오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15일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려 예산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강대강' 대치만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을 국고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 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불타기 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란 말도 나온다. 김재환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변에 편승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

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레다.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49재인 16일 전에는 특위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개문발차'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요지부동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예산안엔 한발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정조사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위반을 해가며 개문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이나 '회색 폭주' 프레임이 곤혹스러운 민주당이나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조금 더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사태는 여론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며 "파국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될 수도 있는 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현안 사업을 막판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야의 협상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및 증액 사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감액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하는 등 지자체에게 가혹한 시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尹정부 성공 함께 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가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당권 도전과 관련해 장 의원과 소통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이후 몇몇 정치적 이슈를 거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권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최종 결심이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당 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철저히 반영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전당대회 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들이 선출하는 건 아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0% 당원투표로 당 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원전산업 다시 도약할 것"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하를 통해 "신한울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 등 원전 산업 관련 지원을 내년에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사막에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이라고 자평했다.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속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

재 핵심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도 APR1400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칭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성사된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을 소개한 뒤 "독자적인 소형모듈 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으나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진석 "40대 이하 당원 30%...권한 존중"

'전대 룰 개정' 거듭 시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된다"며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에 그 정신에 걸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를 개정 관련 질문을 받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 지역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은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급증해 78만 명가량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전당대회 룰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일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를 개정과 관련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제 임기가 3월 12일까지니까 임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이라며 "그러려면 (전당대회 준비에) 조금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원들의 축제"라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어준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